

美合衆國 「조지 부시」 大統領 國會訪問에 대한 國會議長 歡迎辭

—1992年 1月 6日—

美合衆國 조지 부시 大統領 閣下 內外분, 尊敬하는 訪問團 一行과 內外 貴賓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本人은 大韓民國 國會의 與野議員들과 더불어 美合衆國의 조지 부시 大統領 內外분을 여기 韓國의 議會 民主主義 殿堂에 맞이하게 된 것을 衷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閣下께서 大統領으로 當選된 直後 外國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國會에서 主要 政策演說을 하신 때로부터 世界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核 威脅이 減少되고 消耗的인 冷戰時代는 이제 歷史의 옛 기록으로 사라져감으로써 모든 人類에게 平和와 繁榮의 未來에 대한 希望이 밝아오는 보다 더 安全한 世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시 大統領! 閣下는 自由世界의 勇敢한 指導者로서 온 世界를 名實共히 相扶相助하는 共同體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世界史에서도 가장 劇的이고 보람있는 여러가지 變革을 主宰한 것이 事實입니다.

그런 急變속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달라져서도 안되겠지요. 그것은 韓·美間의 공고한 信義와 友愛의 關係이며 이 變革期의 挑戰을 같이 손잡고 正面으로 對處해 나가겠다는 不變의 다짐이었습니다.

大統領께서 우리 두 나라의 經濟 및 安保 協力關係를 「東아시아 平和의 대들보」라고 要約하신 말씀은 곧 21世紀 아시아·太平洋時代의 開幕에 對備하는 根本方向이었습니다.

韓·美 兩國은 世界 어디에서나, 햇빛 아래서나 그림자 아래서나, 언제나 盟邦일 것입니다.

끝으로 本人은 「世界에서 제일 尊敬받는 女性」으로 定評이 나 있는 令夫人 바바라 부시 女史께서 우리의 따뜻한 歡迎을 받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大統領 內外분! 오늘은 두 분의 結婚 47周年 紀念日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祝賀의 뜻을 다시 뜨거운 拍手로 傳합니다. 이 다음에 두 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7,000萬 國民을 代表하는 統一된 韓國國會가 두 분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期待합니다.☎